

KIA 타이거즈 광주 잔류 선수들은 지금...

수술 멤버 훈련보다 힘겨운 '몸 정비'

KIA 타이거즈는 지난 2일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에 캠프를 차리고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말형' 이종범을 필두로 'MVP' 윤석민, 서재응, 안치홍 등 주전 선수들도 마무리 캠프에 참가해 체력·기술훈련과 넥센과의 연습경기 등을 하면서 2011시즌을 마무리 하고 있다.

광주 캠프에서는 '몸 정비' 작업이 한창이다.

부상과 개인 사정 등으로 일본에 가지 못한 투수 양현종·한기주·신용운, 야수 나지완·김상현·김선빈·이용규·김주형이 광주 캠프의 핵심 선수들이다.

올 시즌 골절 부상을 당했던 나지완·김선빈·김상현을 비롯해 '수술 멤버'가 즐비하다.

나지완은 시즌이 끝나고 손과 발 두 군데를 손냈다. 지난달 전지훈련때부터 통증이 호소했던 손바닥 인대 염증 부위를



10일 무등야구장 웨이트장에서 KIA 외야수 이용규(오른쪽)와 투수 신용운이 재활 훈련을 하고 있다.

나지완·김선빈·한기주 수술대 올라

김상현·이용규·김주형은 재활훈련

양현종 14일 31사단 군사훈련 입소

수술했고, 2일에는 시즌 도중 골절상을 당했던 좌측 비골 부위의 철심을 제거했다.

김선빈도 코뼈 골절 부위의 재수술 때문에 지난 7일부터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관대뼈 합골 부상을 당했던 김상현도 광주에서 차분히 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얼굴이 아니라 2010년 수술을 했던 좌측 무릎 부위가 좋지 않다.

12월 결핵을 앞두고 있는 이용규는 어

개가 좋지 않아서 재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 시즌 손가락이 부어 고생했던 한기주도 10일 손바닥 수술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나지완과 같은 손바닥 인대 부위의 수술이다.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느라 시즌을 채 마무리 하지 못했던 김주형도 재활멤버다. 내년 5월을 목표로 재활 절름마 단계다.

마운드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투수들의 움직임도 바쁘다.

KIA 심상투의 대명사 이범석과 특급 잠수함 신용운이 어깨 수술을 받고 부활을 위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모교인 온양중에서 공익근무를 했던 이범석은 지난달 말 소집해제 된 뒤 곧바로 팀에 합류해 재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받았던 신용운도 비상을 위한 재활 운동을 소화하고 있다. 양현종은 부상이 아닌 군문제로 광주 캠프조차다.

지난해 광주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특례혜택을 받은 양현종은 오는 14일 31사단에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 우즈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원아시아 투어 슈퍼시리즈 에미리츠 호주 오픈 1라운드 16번 홀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용은 이글 1·버디 6개 '폭풍타'

싱가포르 오픈 첫날 8언더

'바람의 아들' 양용은(39·KB금융그룹)이 유럽프로골프투어 바클레이스 싱가포르 오픈 첫날 맹타를 휘둘렀다.

양용은은 10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 탄종 코스(파71·662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6개를 쏟아내 8언더파 63타를 찍어내면서 작년 10월 한국오픈 이후 1년 넘게 이어져온 우승

기쁨을 해소할 기회를 잡았다.

2번홀(파3)에서 첫 버디를 잡고 시동을 건 양용은은 6번홀(파5)에서 이글을 기록한 데 이어 7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찍어내 전반에만 4타를 줄였다.

후반 들어서도 버디 4개를 보태 절정의 샷 감각을 보여준 양용은은 11일에는 파71에 7357야드로 세팅된 세리폰 코스에서 2라운드를 시작한다. 양용은은 로이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경기를 시작했을 때 4언더파가 선두였다"며 "탄종 코스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5언더파 정도는 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더 좋은 스코어가 나왔다"고 말했다.

양용은과 같은 조에서 샷 대결을 벌인 필 미켈슨(미국)은 이번과 71타에 그쳐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이승만(31)은 탄종 코스에서 6언더파 65타를 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미국 언론 윤석민 관심 뜨겁다

신문·방송서 연일 조명

KIA 윤석민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심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미국 야후스포츠가 '한국의 스타 투수 윤석민이 내년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가능성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데 이어 10일(한국시간)에는 미국 지상파 방송 NBC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또 다른 잠재적인 자유계약(FA) 투수 : 한국의 윤석민'이라는 제목의 조영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올해 한국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인 윤석민이 최근 스코트 보라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윤석민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다면 성공적이었던 박찬호의 초기 활약을 재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마



이내리그 더블 A에서나 팬들은 투수일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직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사례가 없어 검증 대상이 없는 만큼 윤석민의 가치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윤석민이 최고 시속 93마일(150km)의 직구와 강한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그의 체인지업은 스카우트들에게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윤석민이 올해 한국프로야구에서 172와 3분의1 이닝을 소화했고 탈삼진 178개와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들 뿔났다

선수협 긴급이사회

비리간부 해임논의

프로야구선수협회가 1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집행부 재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동수·이호준(SK), 홍성흔·송승준(롯데), 손시헌(두산), 이병규·박용택(LG), 신경현·류현진(한화), 송지만·김일경(넥센) 등 6개 구단 선수 대표들은 10일 대전역 회의실에서 모여 황령 협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선수협회 고위 간부 A씨와 손민한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다.

각 팀의 베테랑 선수들과 선수협회 이사로 등용된 선수들은 이날 3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 끝에 A씨를 사실상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게임개발업체로부터 선수들의 초상권을 독점 사용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5억 원을 받아 황령과 배임 혐의에 검찰에 기소됐다. /연합뉴스

'선동열호' 내년 4월7일 문학구장 첫 선

2012 프로야구 경기일정 확정

KIA 홈개막전 4월10일 삼성전

'선동열호'가 4월7일 문학구장에서 첫 선을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2시즌 프로야구 페넨트레이스 경기일정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개막식은 4월7일 열리며 KIA는 SK와 문학구장에서 시즌 첫 경기를 갖는다. 삼성과 LG는 대구에서 만나고, 두산과 넥센은 잠실에서 격돌한다. 사직에서는 롯데와 한화의 2연전이 펼쳐진다.

개막경기는 2010년 최종 순위에 따라 1~4위 팀이 홈구장에서 경기를 갖는다. 2010년 순위 기준 1-5위, 2-6위, 3-7위, 4-8위 팀 간 경기로 편성됐으며 5위로 시즌을

마감했던 KIA는 2010 챔피언 SK와 만나게 됐다.

KIA의 홈개막전은 4월10일 열리며, 상대팀은 삼성이다. 5월5일 어린이날 경기도 홈경기로 치러진다.

팀간 19차전씩 133경기를 치르게 되며 올 시즌 홈에서 66경기를 치른 KIA는 2012년에는 홈67경기·원정66경기를 소화한다.

애초 KBO는 내년 시즌 팀당 7경기가 늘어난 140경기를 치를 계획이었지만 2012년 11월 아시아시리즈의 한국 개최를 추진하면서 팀당 133경기를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2012년 경기일정은 구단의 이동거리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개막 2연전을 제외한 전 경기를 주중·주말 3연전으로 편성했다. 올스타전은 7월21일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기 중학교야구

14일 무등경기장서 개막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가 14일 개막한다.

KIA가 주최하고 광주시야구협회와 주관하는 이번대회는 17일까지 4일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며 광주·전남·북지역 9개 학교가 참가해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린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 그리고 야구 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 야구 발전의 밑거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승팀과 2·3위 팀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메달이 수여되며 참가 전체 팀에게는 시합구 10타와 포수장비 1세트, 배트 등이 참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상 10개 부문에 골퍼브와 야구화 등의 상품도 준비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퀀팅, 3M코팅, 모비스퀀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어,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빔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차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 최대 500평 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격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분점)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Advertisement for navigation systems (아이나비, 만도네비, 모비스네비) with prices and features like '가치형 본인 네비 맵핑 전자중' and '트립 이형 정장 모습'.

Advertisement for car accessories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with a list of products and prices, including '만도 블랙박스 BN100' and '대한국 대표 후방카메라'.

Advertisement for security systems (도난경보기, 이자카, 스타트버튼) with images of various devices and their prices, such as 'E770B 40만원' and 'E7-S 43만원'.